

20. 정감록의 신념이 지켜낸 토종 밀

오늘은 정감록의 신념이 지켜낸 토종 밀과 토종 보리 이야기다. 내가 봉화를 찾은 것은 사실 보리나 밀 때문이 아니었다. 하나가리 콩을 찾아보면서 그동안 콩을 꿰끗이 지켜 온 얼마 남지 않은 화전 농민을 만나보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토종 씨앗을 찾으러 갈 때마다 예전 농민운동의 인연에 힘을 기댈 때가 많다. 이번에도 봉화에서 오랫동안 농민운동을 **한 이상식 회장님**과 유금순 여성농민회장님을 통해서 화전을 많이 일궜던 재산면과 소천면을 살살이 둘러볼 계획이었다.

이번 수집 길에 특히 미안하고 죄송한 것은 시한부 삶을 살고 계시는 유 회장님의 안내를 끝내 거절하지 못했다. 동물은 겨울을 만나면 텔갈이를 시작하고 사람들은 긴 팔의 옷을 입기 시작하는 법인데, 아무런 자기 보호구 없이 인생 백분의 일을 토종을 찾으러 왔다는 이유 때문에 오로지 써가며 애쓰신 유금자 선생, 내가 토종을 지키고자 하는 **희망**을 하찮게 만든 그분의 열정. 마지막 봉사에 들뜬다는 활기찬 얼굴에 차마 더 이상 말리지 못했다.

새벽 네 시에 출발하여 소천 면사무소에서 두 분을 만난 것이 오전 열 시쯤. 하나가리 콩 수집 다닐 곳에 대해 의견을 나누다가 언뜻 토종 보리와 밀을 키우는 기인 한 분이 계신데, 기인이라서 만나봐야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는 없겠지만, 알아듣는 척하다가 **토종만** 수집하고 오면 되니까 시간 나면 한번 가보자는 것이었다.

두말없이 나섰다. 안 되면 하루 더 묶을 작정을 하고 한달음에 달려갔다. 봉화가 먼 길이었지만, 그분이 사신다는 소라동천은 면 소재지에서도 수없는 굽이마다 펼친 명승을 지나 더 깊은 곳에 내려앉아 있었다. 봉화가 산골이라지만 그분이 기거하는 곳은 아하, 이제는 자연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즈음에 널찍하게 빛이 열리는 곳이었다. 가히 승지라 할 만한 소라동천이었다.

그곳에 백학경 어르신이 계셨다. 93세라 했다. 그러나 얇은 손등과 굽은 허리에는 연세의 굴곡은 있었으나 흥조가 땀 얼굴에는 정말 선한 웃음만이 남아 있었다. 낯선 방문객을 반갑게 맞이하더니 서슴없이 방으로 들어오게 한다.

좁은 방안에는 넓은 고서 몇 권과 그분의 구학문을 짐작할 수 있는 한문 글씨 노트가 펼쳐져 있었다. 우리는 거기서 세 시간을 훌쩍 넘겼다. 막상 와보니 보리뿐 아니라 오곡 모두 토종으로 간직하고 계셨다. 그분이 그렇게 토종을 간직한 사연이 기이하니 들어보자.

그분의 고향은 이북의 영변 부근 태천이었는데, 위도 39도 중심으로 오르내리는 6·25 전란 폭음이 나날이 심해졌다. 한번은 남쪽 군이, 한번은 북쪽 군이 번갈아 가면서 마을을 풍비박산 내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어르신들이 어르신에게 격언처럼 떠돌던 전언, ‘난이 나면 풍기로 가야 산다’라는 말이 정말 현실화가 되고 있었다. 전언이 있었지만, 단순히 고향이라는 이유로 떠나지 못했던 어르신들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그는 전언대로 고향을 떠날 결심을 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조선시대 비기인 정감록을 신봉한 집안으로 백 할아버지도 어려서부터 주역을 공부했다. 거기에다가 주역을 넘어 수학에 더욱 정진하여 정역에 정통하게 되었다. 주역은 중국에서 나왔지만, 다시 이 주역의 오류를 바로잡은 사람이 일부 김향이요, 김향은 동학의 시조 최재우와 동문수학하신 분이다. 그가 다시 세운 역이 정역이었다. 그의 정역에서는 후천개벽을 주장한다.

백학경 어르신의 학문은 점점 신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곧 다가올 그 후천개벽을 기다릴

승지가 필요했다. 신념이 서자 결심 또한 빨라졌다. 그는 승지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왔다.

내가 젊어서 정역을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 포기한 적이 있었으니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지, 아니면 모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줄 사람이 와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정말 우리가 떠나야 할 시간을 미리 예지했는지 말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평생을 공부하신 것을 단시간에 설명하려니 말하시는 분이나 듣는 사람이나 답답하긴 마찬가지였다. 백 할아버지는 말을 하다가 답답했는지 공책을 펴 놓고 설명을 시작했다. 이 회장님과 유 회장님은 벌써 밖에 나가 내가 말을 끊고 나오기만 기다리며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의 기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는 계속됐다.

그가 북을 탈출하여 이상향인 승지와 인연을 맺기 위해 찾은 곳은 미사리를 거쳐 유구 마곡사, 그리고 다시 승지 중의 승지인 풍기에 다다라 자리를 잡는다.

그러니까 정감록이라는 비기에는 10 승지가 있고 세상의 전란을 면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을 말한다. 그리고 신선이 산다는 36 동천이라는 큰 동천이 있고, 72개의 소동천이 있는데 모두 승지에 속한다. 그곳에서 후천개벽을 기다린다. 그러나 정감록 비기를 자세히 보면 승지마다 성씨를 가리는데, 불행히도 풍기에는 백 씨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고, 급기야는 백 씨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 이곳 소리동천에 자리를 잡고 벌써 44년째 후천개벽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분하고 토종 씨앗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정역 강의를 이 산중에서 듣고 있지?

후천개벽의 시대가 오면 밭만이 사람을 구하고 밭농사가 주를 이루는 이상향이 온다. 그래서 후천개벽에서 오곡은 쌀이 빠지고 메밀이나 감자, 팥 등이 들어간다. 그는 이사 다닐 때마다 신주 모시듯 밭곡식 종자를 가지고 다녔다 한다. 물론 이북에서 올 때도 피난 봇짐 속에는 오곡이 들어 있었다. 따지고 보면 그분은 실상 토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후천개벽의 세상에서 심어야 할 곡식을 보존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을 뿐이었다. 소라동천의 좁은 밭에는 지금도 골고루 그때 가지고 온 오곡 작물을 심는다.

그분이 처음 이곳에 올 때 가지고 들어 온 종자 중에는 오랫동안 집안에서 심던 토종밀이 있었다. 그런데 마을 사람이 알곡이 좋은 밀이 있다 해서 구하여 심었다. 육종한 신품종 밀이었던 듯하다. 그 분에게는 그것이 육종이냐 토종이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후천개벽의 땅에서 더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이왕이면 알곡이 큰 종자가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농사까지는 잘 지었다.

그런데 문제는 탈곡이었다. 그가 구해 온 밀은 알곡은 좋은데, 도리깨질로 잘 털리지 않았다. 육종은 잘 떨어지지 않는 품종과 알곡이 큰 품종을 교배해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본래 토종은 자연의 상태와 가까워 번식 본능으로 바람에도 잘 털리는 쪽으로 진화했다. 그러나 육종은 그 반대였으니 도리깨보다는 기계로 타작하기 좋게 만들었을 것이다.

문제는 그는 농사를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먹은 나머지는 후천개벽의 세상에 가지고 들어 갈 씨앗만 있으면 됐으니 소량으로 다품종을 심었다. 그렇다 보니 누군가와 품앗이도 할 수 없었고, 기계 주들은 타산이 맞지 않으니 기계로 탈곡을 해주지 않았다. 거기에는 계곡 바람이 불어와 한 번이라도 비바람이 몰아치면 엎치기 일쑤였다. 엎치면 탈곡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어쩔 수 없이 모두 손으로 털어야 했는데, 너무 힘이 들어 그는 궁리 끝에 다시 예전에 심던 밀로 바꾼 것이 지금 밀이라는 것이다. 대신 그 뒤로 밀은 농사짓기 편하도록 키 작은 밀만 골라 심었고, 그렇다 보니 지금은 키 작은 밀이 됐다는 것이다. 그 뒤로는 한 번도 종자를 바꾸지 않았다 했다. 그가 다른 토종을 지켜 온 이유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후천개벽의 땅에 적

응할 수 있는 종자를 지키는 것이다.

요즘 토종 밀을 대표하는 것은 진주의 앉은뱅이 밀이다. 우리 박물관에도 토종은 남해에서 수집한 것과 거창에서 수집한 밀 그리고 앉은뱅이 밀이 전부다. 남해의 것은 앉은뱅이 밀이요, 거창은 키 큰 밀이다.

- 그럼 앉은뱅이 밀인가요?

- 응? 우린 그런 거 몰라.

혹시 진주 앉은뱅이 밀일지 몰라 귀 어두운 분에게 몇 번이고 확인했으나 답은 한결같았다. 그분에게는 품종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소라동천의 밭에 있는 어떤 것도 정확한 이름은 없었다. 하긴 혼자 심어왔으니 따로 이름이 필요했을까? 그냥 밀이고 그냥 보리요 그냥 팥이면 됐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 올해 다시 심어봐야 알 듯했다. 자꾸 말로 확인하려 하자 자루에서 한 모가치 밀을 꺼낸다. 오늘 여기 소라동천에 찾아온 몹이란다. 밀알을 보니 앉은뱅이 밀과 비슷하다. 그분이 말씀하는 것이 앉은뱅이 밀의 특성과 비슷한데, 종자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선별하여 손에 맞게 개량을 한 밀이라니 그나저나 내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 토종 밀이 내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새싹이 나고 성장하는지, 또 어떤 이삭을 내밀지 자못 궁금하다. 어쨌든지 지금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분의 손에 밀이 있다는 것이 중요할 뿐이었다.

토종 보리는 그때까지 탈곡도 하지 않았다. 아니 아예 탈곡을 하지 않을 셈이었다. 나무를 엊갈려 세우고 긴 장대를 올려놓고 그 위에 보릿단을 걸쳐 놨다. 이게 보관이란다. 이렇게 놔 두면 여름 비바람에 삭고 가을 바삭한 햇빛에 녹아 손에 비벼 뿌리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 자세히 보니 케케이 몇 년은 됨직한 보리들이 안에 쌓여 있었다. 또 자세히 보니 육모보리도 있고, 네모보리도 있다. 하긴 이분에게 그것이 무에 중하겠는가.

그분한테 지금까지 이 토종이 지켜진 것은 토종을 지켜 우리 것을 얻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혼란하여 분탕질 되어 개벽할 때 필요하다는 바로 그분의 신념 때문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혹시나 하고 물었다.

- 아니 왜 토종을 심어요?

- 어느 놈의 종자에 주검이 있는지 누가 아나? 살아남을 놈을 심는 게지.

맞는 얘기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다. 살아남아야 후천개벽도 볼 수 있다.

그의 밭에는 그동안 소라동천에서 살아남은 씨들만 자란다. 나대지 모래 자갈밭과 아래위로 불어오는 계곡의 골풍과 보통 1000여 미터의 산들이 바투 붙어 그사이에 비추는 짧은 햇빛으로도 후대에 남길 수 있는 그런 토종 종자들만이 가을걷이하는 그의 마당에 널려 있다.

요즘은 근력이 빠져 모든 종자를 다 심을 수 없다. 그렇다고 후천개벽을 위한 종자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종자의 수명에 기댔다. 보통 씨앗은 상온에서 2년 정도는 생명력을 유지한다. 그래서 그분은 종자를 가려 해를 걸러 심는다. 올해 우리가 세 종류밖에 수집하지 못한 이유다. 차마 금세라도 다가올지도 모를 후천개벽의 씨종자를 모두 가져올 수는 없는 일이었다.